

건강 칼럼

여름철 응급상황 대처방법

무덥고 습한 여름에는 도심 속 무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많은 인파가 몰리게 되면 뜻하지 않은 크고 작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즐거운 여름을 보내기 위해 우리가 알아두면 유익할 여름철 발생하기 쉬운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방법을 알아보자.



김형재

응급의학과 전문의

▲일반적인 대처방법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되면 119번으로 전화를 걸어 구급차를 요청한다. 구조요청을 하지 않은 채 일반처방으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 환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환자를 안전한 장소에 환자를 옮기는 것이다. 그리고 환자를 평가한다. 환자에 대한 평가는 먼저 생명이 위급한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즉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응급처치를 실시한다. 대부분의 생명구조 활동은 가장 가까이에 있던 사람이 응급처치를 취했을 경우에 효과가 크다.

▲산에서 골절 대처방법

낙상 등으로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면 대처 요령 다음과 같다. 첫째,

척추 골절이 의심된다면 환자를 움직이지 말고 손으로 머리를 고정하고 같은 옷을 따로 대어 환자를 지지하고, 모포로 환자를 덮고 의료 지원을 기다린다. 둘째, 팔이 골절되었다면 상처 입은 쪽의 팔을 가슴에 대고 가슴과 팔 지지해 해준다. 가슴과 팔 사이에 부드러운 헝겊 조각 같은 것을 끼워 준다. 셋째, 골반부위에 골절이 의심된다면 다리를 펴준 채로 환자를 눕히거나 무릎을 구부리는 것이 더 편안하다고 하면 무릎은 약간 굽혀도 되며 이대로 고정한다. 묶어서 다리를 고정하는데 관절 사이에는 패드 등을 넣는다. 넷째, 발에 골절이 발생하면 환자를 눕히고 구두와 양말을 조심스럽게 벗긴다. 아픈 쪽의 발을 들고 발바닥에 형질을 대고 부목을 받쳐주면 된다. 다섯째, 쇄골(어깨

부위) 골절이라면, 환자를 앉히고, 손상된 쪽 팔을 가슴을 지나 반대 쪽으로 가게 한다. 넓은 천으로 다친 쪽 팔을 가슴에 고정시키고 병원으로 이송한다.

▲물놀이 사고 대처방법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물놀이하다가 가끔 물에 빠진 경우를 목격할 수 있다. 이때 사고를 목격한 사람들은 급한 마음에 물에 급히 들어가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잘못된 구조자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물에 빠진 사람은 일단 무엇든지 잡으면 꼭 잡고 절대 놓지 않기 때문에 구조자가 환자에게 잡아서 행동이 제한되면 두 사람이 같이 위험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때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줄, 긴 막대, 튜브 등

의 도구를 이용하여 환자가 도구를 잡고 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다. 만약 이 방법들이 이용될 수 없으면 구조자가 직접 물로 들어가서 구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는 환자의 앞이 아니라 뒤로 접근해서 구조해야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다. 환자가 이미 의식이 없고 호흡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시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물에 빠진 사람들은 물을 많이 마셨기 때문에 위에서 물을 빼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배를 누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행동이며 배를 누를 경우 위 내용물이 역류하면서 기도를 막게 되거나 폐로 들어가서 나중에 폐렴 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환자의 배를 누르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는 기도를 확보한 후 흉부 압박과 인공호흡을 30:2 비율로 환자가 깨어나거나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반복한다.

평소 응급상황에 자주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응급상황 시 대처방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그러나 응급상황 발생 시 적절한 대처방법을 알아두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우리의 건강한 삶을 이어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철저한 대응을

일본의 수출 규제에 철저한 대응이 있어야겠다. 일본이 2차 경제 보복을 단행한지도 이제 보름이 가깝다. 전복도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한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던 터라 충격이랄 것은 없다. 그래도 전복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반적으로 세세히 파악해야 한다. 사실이지 일본의 경제 도발은 국내 어떤 경제 석학들의 지적처럼 오히려 잘 된 일인지도 모른다. 한국이 일본의 경제 예측으로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전복도가 대응책을 위해 민간정연석회의를 가졌는데 당연한 수순이다. 일본의 경제 도발에는 국일이 약이다. 전복도는 국일을 위해 역량을 한껏 발휘해야 한다. 도민들에게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 전복도가 신속히 대처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있다. 관계자 연석회의에서 이선홍 정주 상의 회장이 말한 그대로 일본의 경제 도발 때문에 탄소산업과 화학산업이 타격을 받으리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전복도는 도내 주요 먹거리 사업인 탄소산업이 피해를 덜 받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

다. 화학 분야의 사업도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번에도 말했거니와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이번만큼은 일본에 지지않겠다는 의지가 강고하다. 일본이 그랬던 것처럼 한국 정부도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고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예산에 1조원 이상을 별도로 마련할 방침이다. 전복도는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로 전복의 피해가 예상된다 해도 그에 기가 꺾여서는 안된다. 도민의 뜻을 받들어 일본의 수출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난국의 시기에는 함께 뭉치려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절실하다. 전복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복도가 수출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을 위해 융자금을 지원하고 일본이 아닌 해외 마케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마음 든든한 일이다. 것처럼 수출 다변화를 도모하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에게 용기를 낼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여기 거듭 당부하거니와 전복도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

일자리 대책 강구해야

전복도가 일자리 확보를 통해 인구 감소를 막겠다고 밝힌지 오래되었다. 전복도가 말한 그대로 일자리 확보야말로 인구 감소를 막는 최고 대책이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역시나 어두운 것 천지다. 도내 취업률이 여전히 저조하다는 보도이다. 이에 대해 전복도는 이마를 짚어야겠다. 경제 전망이 먹구름 속처럼 흐린 가운데 청년실업률이 심각할 정도로 저조하다. 고용률 최저라는 성적표도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는데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전복도는 계속해서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도내 고용동향을 보면 답답할 뿐이다. 이래서는 곤란하다. 전복도는 먼저 술선수벌하는 자세로 지역 인재 고용의 사례를 많이 보여줘야겠다. 청년 고용 열기가 아직도 미지근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외환위기 이후 청년실업률이 가장 높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감각이 둔한 탓이다. 도내 취업률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어떻게 끌어 올려 보려는 움직임이 부족하다.

전복도와 각 시군 지자체는 일자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고용 열기도 더 달구어야 한다. 오래전

부터 수차례 언급하기도 하고 지적하기도 했거니와 많은 젊은이들이 우리 지역을 떠나고 있다.일자리가 예전보다 못하데다 오히려 줄고 있으니 왜 아니겠는가. 고용 현실이 전국에서도 밑바닥 수준이라는 지적은 괜한 것이 아니다. 전복도와 각 시군의 고위 관계자들은 청년 실업의 현실을 총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청년 실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전복도가 파악한 그 이상으로 심각하다. 그렇기에 청년들은 때때마다 발표된 보고에 공감하지 않았던 것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한두 번 시도해보고 그만 둘 게 아니다.전복도가 인식하고 있는 그대로 인구감소는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일자리 창출이며 청년 고용은 전복도가 발 벗고 나서야 마땅하다. 그리고 공공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전복도는 일자리 대책을 강구하라는 소리를 들을 때면 느끼는 것이 있을 터이다. 다른 광역시도들과 비교해 갈수록 뒤처지고 있는 현실을 아파해야 한다. 전복도는 일자리 확보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천명했으므로 이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중국 154개 도시서 불법 총기류 압수 및 파괴



12일(현지시간)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불법 무기류와 폭발물 파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중국 경찰은 중국 내 154개 도시에서 총 10만7000여 건의 불법 총기와 대량의 폭발물을 압수해 파괴했다고 밝혔다. 이 총기류와 폭발물들은 지난해부터 중국 경찰이 압수하거나 소지자가 자진 반납한 것으로 이번 중국 공안의 파괴 조치는 지난해 9월 146개 도시에서 불법 총기류 등을 파괴한 이래로 두 번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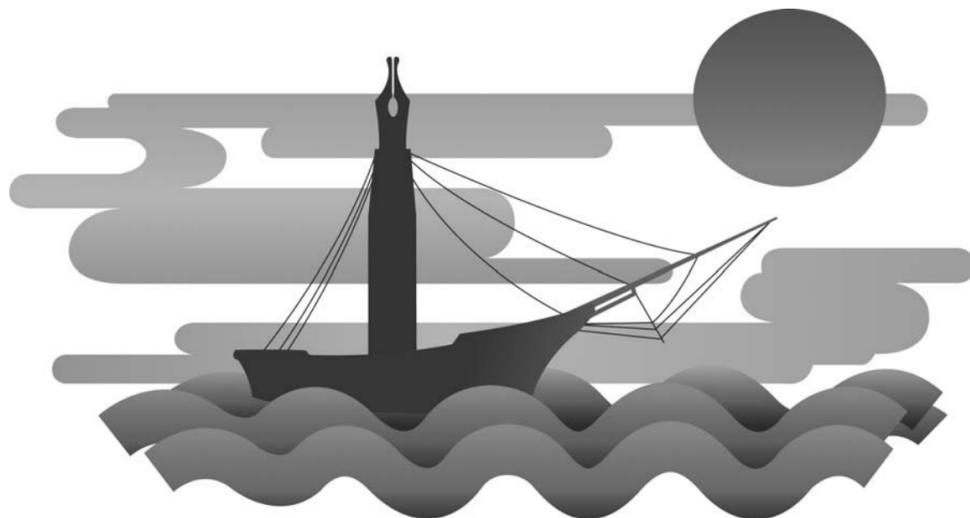
원주민 권리 호소하는 브라질 원주민 여성들



12일(현지시간)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원주민 여성들이 '원주민 여성 건강 행진'에 참가하고 있다. 얼굴에 칠을 하고 전통 복장을 한 이 여성들은 브라질리아에서 여러 날을 함께 아영하며 원주민들의 권리문제를 부각하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